

근로기혼여성의 이중노동부담에 관한 실증연구 :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협조적 적응, 이중노동부담, 적응지체 가설의 검증

김진욱

(연세대학교)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의 경제참여 증가에 따른 무급가사노동의 부담정도를 설명하고 있는 세 가지 가설을 한국 상황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가설이란 기혼여성이 취업할 경우 남성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가사노동을 분담한다는 협조적 적응 가설, 남성배우자의 가사노동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기혼여성은 유급과 무급의 이중적인 노동부담에 처하게 된다는 이중노동부담 가설, 그리고 어느 한 시점에서 근로기혼여성의 이중노동부담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정도는 세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적인 추세를 관찰하면 맞벌이 남성의 가사노동분담도 역시 증가해 왔다는 적응지체가설이다. 이상의 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핵심 독립변수로 성별, 연령, 맞벌이 여부, 종속변수로는 총 노동시간과 무급가사노동시간이 설정되었고, 분석자료는 1999년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 원자료가 이용되었다. 연구결과, 근로기혼여성은 남성배우자에 비하여 하루 평균 100분 이상을 더 일하고 있었으며, 한국 남성들의 가사노동시간은 23-25분 정도로 여성의 5-10% 수준에 불과하여, 무급가사노동의 부담수준이 매우 낮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남성의 무급가사노동시간의 변이를 설명하기 위한 독립변수로 설정되었던 맞벌이 여부나 연령의 통계적 유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한국의 상황에서는 협조적 적응 가설은 물론 세대간의 행위차이를 가정한 적응지체 가설도 채택될 수 없었으며, 이중노동부담가설이 근로기혼여성의 현실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취업여성의 이중노동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제도의 확충, 보살핌노동에 대한 보상체계 등을 제안하였으며, 시간자료를 이용한 후속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무급가사노동, 이중노동부담, 생활시간조사, 노동의 성분업

1. 서론

최근 저출산의 문제가 인구의 노령화를 심화시키고, 향후 국가의 경제·안보·사회분야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산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와 정책마련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

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경제참여증가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노동의 성분업 구조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저출산은 기존의 사회문화구조에 적응하기 위한 가구와 개인들의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산물로 보인다. 즉, 취업여부와는 관계없이 양육의 일차적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기혼 여성에게 있어서, 경제활동과 출산·양육은 병행해야 할 과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로 남기 때문이다(장지연·부가칭, 2003). 따라서, 출산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기혼여성의 아동양육 책임, 나아가 전반적인 무급가사노동의 부담을 분담시키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분담은, 기존의 시장적 대안 외에,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가능하다. 하나는 국가정책적 차원으로서, 국가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아동양육의 책임을 사회화시킴으로써 가구에 할당된 무급노동의 부담을 분담해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성과 여성 간에 불평등하게 할당된 무급가사노동의 부담을 조정함으로써 가구내의 노동의 성분업 구조를 재구조화하는 차원이다. 지금까지 사회복지학계에서는 전자와 같은 국가 정책적 대안을 꾸준히 주장해 왔지만, 이와 같은 정책 개발의 기본 정보로 고려되어야 할 가구와 개인의 미시적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학계의 연구 성과가 거의 축적되어 있지 못하며 이에 대한 관심 자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가구내의 성별 가사노동분담구조는 어떠한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그리고 그 양상이 맞벌이와 비맞벌이 부부간에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는 것은 각종 사회복지 제도의 정책적 대안을 논의함에 있어 미시적인 기초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복지학계가 시급히 다루어야 할 연구과제로 제안될 수 있다.

과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가 가구내의 가사노동 분담구조, 즉 전통적인 노동의 성분업 구조를 변화시켜 왔는가? 이 질문에 관하여 크게 세 가지의 이론적 가설들이 개발되어 왔다. 첫째는 기혼 여성이 취업할 경우 남성들이 가사노동을 더 분담하여, 아내의 늘어난 노동부담을 줄여준다는 입장이고(협조적 적응 가설), 둘째는 남성들의 미시적 행위와 의식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취업 기혼여성의 이중노동부담이 예상된다는 것이다(이중노동부담 가설). 세 번째 가설은 이 두 가지 입장의 절충형으로서,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에 차이가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차이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 지체되고 있지만 양성간의 수렴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적응지체 가설). 과연,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구조는 어떠한가? 이것이 전통형 비맞벌이 부부의 가사분담 유형과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가구의 성별, 맞벌이 유형별 시간사용구조를 분석함으로써, 가구내의 미시적인 노동의 성분업 구조를 파악하여,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세 가지 이론적 가설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이론인 협조적 적응, 이중노동부담, 적응지체가설의 내용을 각각 살펴보고, 가사노동에 대한 실증연구 동향을 살펴본다. 제 3절은 연구방법으로서, 분석에 이용된 199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 및 분석대상표본, 세 가지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가설을 검증위한 분석방법, 분석의 종속변수 및 독립변의 정의와 측정 등을 다루게 된다. 제 4절에서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총 노동시간 및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기술통계, 다변량분산분석, 중다회귀분석 등의 분석기법이 적용되었다. 마지막 결론부분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최종적으로 채택된 이론적 가설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이론적, 정책적 함의는 무엇이며, 또 사회복지연구원자들에게 남겨진 후속 연구과

제는 어떤 것인지 논의해 보기로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동향

1)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가설: 협조적 적응모형, 이중노동부담모형, 적응지체모형

저쉬니(Gershuny)와 그의 동료들(1994: 151-2)은 1970년대와 1980년대 가사노동의 분담에 대한 연구경향을 종합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와 이에 대한 가구의 대응방식에 대한 두 가지의 상반된 이론이 제시되어 왔다고 밝히고 있다. 하나는 협조적 적응(Adaptive Partnership)모형으로서 가사노동의 분담은 가구구성원들의 경제활동 참여의 패턴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 가설에 의하면, 기혼 여성이 취업을 하여 맞벌이 가구가 될 때, 역시 취업상태에 있는 남편들은 그 이전보다 가사노동을 더 분담하여, 아내의 늘어난 노동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이 가설은 맞벌이 가구의 남편들이 아내의 취업이라는 새로운 조건에 '협조적으로 적응'해 가는 상황을 설정한 것이다.¹⁾

두 번째의 기존 모형은 노동의존(Dependent Labour) 또는 이중노동부담(Dual Burden) 가설이다. 이 모형은 사회문화적인 규범이 여성의 노동력을 부차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의 일차적 책임은 재생산과 일차적 노동력을 제공하는 남성을 유지시키는 것으로 고착화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즉, 변화하는 환경에 개인들이 적응하지 못하고 기존의 사회문화적 관습을 되풀이하는 이른바 '문화지체'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고 맞벌이 가구가 급증했으나, 여성의 일차적 노동으로 규정된 무급가사노동에 대한 책임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따라서 맞벌이 여성들은 기존의 무급가사노동과 함께 시장에서의 유급노동 부담까지 더해짐으로써 '이중노동부담'의 상황에 놓여지게 된다. 실제로, 무급가사노동 분담에 관한 대부분의 실증연구들은 이러한 근로여성의 이중노동부담 가설이 지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Young and Willmot, 1973; Oakley, 1974; Baruch and Barnett, 1983; 이상 Gershuny et al, 1994: 153에서 재인용; Hochschild, 1989).

하지만 저쉬니 등(1994)은 이중노동부담을 주장하는 실증연구들 대부분이 횡단(cross-sectional) 자료에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역사적 또는 종단적(longitudinal)인 분석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그들은 시간소비에 관한 장기적 시계열연구를 통해 협조적 적응모형과 이중노동부담 가설 모두 지지되지 않음을 주장하며, 제 3의 모델로서 '지체된 적응모형(lagged adaptation model)'을 제안하고 있다. 즉, 가구의 미시적 행위는 문화적·사회적 규범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급격히 변화하지는 않

1) 예컨대, 가사노동시간과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호렐(Horrell, 1994)의 연구는, 여성의 취업으로 인해 감소하게 된 가사노동시간의 상당부분은 시장재화에 대한 추가적 구매에 의해서가 아니라 남성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 증가에 의해 대체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녀는 무급가사노동시간이 임금변수나 유급노동시간에 의해 영향 받는 부분은 매우 적으며, 오히려 사회문화적 규범이 더 큰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지만,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성들이 기존의 성역할과 관념에 묶여 행위의 변화가 '지체'되고 있지만, '정체'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성의 유급노동 증가에 따라 맞벌이 여성의 총 노동시간은 증가했지만, 그 증가속도는 느렸고 남성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은 완만하지만 실질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근로여성의 늘어난 노동부담을 상당 부분 대체해 왔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결국, 남성들은 여성이 일터로 향하고 있는 새로운 환경에 비록 지체되어 있으나 적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적응지체 현상은 아주 장기적인 변화를 관찰하면 발견할 수 있다. 즉, 남성들의 미시적 행위규범이 '세대(generation)'간에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적응지체 가설은 시간사용구조의 성별, 국가간, 계층간 장기적인 수렴과정을 분석하고 있는 저쉬니의 최근 저작에서 다시 한번 주장되고 있다(Gershuny, 2000).

2)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국내 선행실증연구의 동향

가사노동연구에 있어 가장 근본적으로 제기되는 질문은 가사노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이다. 가사노동의 개념은 가정학과 경제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논점은 의식주와 관련된 전통적 가정유지활동외의 보살핌 노동을 가사노동에 포함시킬지의 여부이다. 가사노동의 범주를 사적영역인 개별 가정내에서 가족구성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화와 용역의 생산활동으로 정의할 경우 주로 전통적인 의·식·주 관련 가사활동을 의미하는 것이지만(Nickell et al., 1979; Waler and Wood, 1976; 이윤숙, 1995; 이상 최혜숙·이은혜, 1998: 85에서 재인용), 최근의 연구경향은 출산·양육은 물론 가족구성원에 대한 광범위한 보살핌 노동까지 노동력 재생산의 측면에서 가사노동의 범주로 포함시키는 추세이다(Gershuny et al., 1994, 2000; 송혜림, 2000; 이미숙, 1994; 홍승아, 1998).

특히 최근, 우리나라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높아지면서, 기혼 여성의 출산·양육이나 노인 부양 부담을 부가시켜 성친화적 국가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장지연·부가청, 2003; 김미경·송다영, 2002; 김미경·주재선, 2003), 이러한 연구들은 가사노동 중 보살핌노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아가, 노동력 재생산의 근간인 가사노동의 전반적인 가치를 경제적으로 측정·평가하기 위한 연구들 역시 가정학계에서는 전통적인 연구주제이다(양세정·김태은, 2002; 문숙재·윤소영·김은희, 2002).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거시적 수준에서의 여성의 부양부담이나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했을 뿐, 가구내의 미시적 가사노동 분담구조를 이해하려는 연구들은 아니다. 특히,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미시적 실증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혼남성의 행위에 대한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러한 분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가사노동투입정도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생활시간조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가구의 생활시간사용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구체적인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실증연구들 역시 90년대 이후 활발히 진행되어 왔는데, 이를 종합하면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다시 정리될 수 있다.

하나는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분담 실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기혼취업여성의 이중노동부담을 지적하는 연구들이다 (손문금, 2003; 이기영 외, 2001; 조미환·임정빈, 1997; 조희금, 2000). 이러한 실

증연구들은 우리나라 맞벌이 남성들의 가사노동분담정도가 매우 낮아, 맞벌이 여성들은 유급노동과 무급가사노동의 이중적 부담을 지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이중노동부담으로 전업주부나 배우자에 비해 더 적고 질이 낮은 여가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러한 실증연구들은 맞벌이 여성의 취약한 상황을 부각시키는 것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을 뿐, 일관적인 이론적 관점을 가지고 연구 모형을 설정하거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시도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²⁾ 특히, 일기작성 방식으로 생활시간조사가 이루어진 일부 연구들을 제외하고는(손문금, 2003; 이기영 외, 2001), 기혼 부부에 대한 가사노동분담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해내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맞벌이 부부 남편의 가사노동분담 정도를 설명하기 위한 시도들이다(송혜림, 2000; 이명신, 2001; 조성은, 1998; 신성은, 1996; 최혜숙·이은혜, 1998). 이러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남성들의 가사노동분담이 크게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성역할태도³⁾나 부부내의 권력구조와 같은 미시적·주관적 요인들이 가구내의 가사노동분담정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비록 일정한 이론적 틀을 가지고 남성의 가사노동참여 정도를 분석하고 있으나, 대부분 표본의 크기가 작아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 정책적 제언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또한 자료수집 방법 역시 일기기입방식에 의해 시간량의 투입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평가식 설문지 기입(즉, 가사분담에 대한 주관적 인식)에 의존하고 있는 한계를 가진다.

3. 연구방법

1) 분석자료와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이 1999년 실시한 제1차 생활시간조사 원자료이다.⁴⁾ 이 조사는 1999년 9월 2일부터 14일까지 13일간 실시되었는데, 조사대상 가구의 10세이상 모든 가구원들이 자신의 시간일기를 10분 간격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다. 즉, 각 개인이 주행동, 동시행동, 행동장소를 10분 단위 일지에 기록하게 되며, 따라서 하루는 144(24*6)개 시간 단위로 구성된다(총 1440분). 한 개인당 2일간 조사되었고, 행동유형은 총 9가지의 대분류와 125개의 세부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표본규모는 약 17,000가구, 만 10세 이상의 가구원 약 46,000명이었으며, 유효응답자수는 16,389가구의 42,973명이다.

2) 본 연구와 동일한 생활시간조사를 사용한 손문금(2003)의 연구 역시, 이러한 제한점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이러한 연구들은 가사노동분담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평등한 성역할태도를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은 필연적으로 남성에 대한 계도·계몽, 아동에 대한 교육과 같은 규범적인 차원의 대안을 제시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

4) 통계청은 1999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매 5년마다 이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04년 두 번째로 조사된 자료는 2005년 6월 공표예정이다.

〈표 1〉 분석표본의 특성(N=8,261쌍)

구분 및 범주		남성 (N=8261, 100.0%)		여성 (N=8261, 100.0%)	
		맞벌이 (N=4455, 53.9%)	비맞벌이 (N=3806, 46.1%)	맞벌이 (N=4455, 53.9%)	비맞벌이 (N=3806, 46.1%)
미취학 아동	있음	1,100 (24.7)	1,756 (46.1)	1,100 (24.7)	1,756 (46.1)
	없음	3,355 (75.3)	2,050 (53.9)	3,355 (75.3)	2,050 (53.9)
동거 노인	있음	623 (11.4)	220 (5.8)	623 (11.4)	220 (5.8)
	없음	3,832 (88.6)	3,586 (94.2)	3,832 (88.6)	3,586 (94.2)
교육 수준	중졸이하	1,436 (32.2)	595 (15.6)	2,059 (46.2)	918 (24.1)
	고졸	2,023 (45.4)	1,806 (47.5)	1,841 (41.3)	2,156 (56.6)
	초대졸이상	996 (22.4)	1,405 (36.9)	555 (12.5)	732 (19.2)
연령	35세미만	637 (14.3)	1,175 (30.9)	1,140 (25.6)	1,710 (44.9)
	35-44세	1,879 (42.2)	1,560 (41.0)	2,026 (45.5)	1,382 (36.3)
	45-59세	1,939 (43.5)	1,071 (28.1)	1,289 (28.9)	714 (18.8)
조사 요일	평일	2,732 (61.3)	2,281 (59.9)	2,731 (61.3)	2,274 (59.7)
	토요일	831 (18.7)	753 (19.8)	828 (18.6)	753 (19.8)
	일요일	892 (20.0)	772 (20.3)	896 (20.1)	779 (20.5)
유급 노동시간	주40시간이상	3,947 (88.6)	3,496 (91.9)	3,233 (72.6)	-
	주40시간미만	508 (11.4)	310 (8.1)	1,222 (27.4)	-
직업	전문/관리직	348 (7.8)	558 (14.7)	217 (4.9)	-
	준전문/기술/사무직	644 (14.5)	970 (25.5)	542 (12.2)	-
	서비스/판매직	976 (21.9)	408 (10.7)	1,789 (40.2)	-
	기능/단순노무/기타	2,481 (55.7)	1,855 (48.7)	1,907 (42.8)	-
주거 형태	자가	2,910 (65.3)	2,177 (57.2)	2,910 (65.3)	2,177 (57.2)
	전세/월세/기타	1,545 (34.7)	1,629 (42.8)	1,545 (34.7)	1,629 (42.8)

자료: 통계청, 1999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이 가운데,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일차적으로 20-60세 사이의 유배우 기혼남녀로 한정되었고, 경제 활동시기를 벗어난 60세 이상의 노인계층과 이혼 및 사별한 기혼자들은 성별비교가 불가능하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생활시간조사의 원자료는 가구가 아닌 개인별 자료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각 부부의 맞벌이 여부를 알기 위해서 우선 가구주와 그 배우자를 따로 추출하여 부부단위 자료로 통합하였다. 이렇게 하여 추출된 부부는 총 8,917쌍이었다. 또, 본 연구에서 부부의 유형은 맞벌이 부부와 비맞벌이(남성부양형) 부부로 구분되는데, 남성이(또는 부부 모두가) 실직상태에 있는 경우는 이러한 구분에 속하지 않으므로 분석에서 역시 제외되어, 총 8,261쌍(16,522명)만이 최종 분석대상으로 추출되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분석표본의 특징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총 분석대상 8261쌍 가운데 맞벌이 부부는 전체의 53.9%인 4,455쌍이었고 비맞벌이(남성부양형) 부부는 전체의 46.1%인 3,806쌍이었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맞벌이 여부에 따라 분석대상의 특성이 상당히 달라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맞벌이 부부 가운데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는 전체의 24.7%에 불과한 반면, 비맞벌이의 경우 46.1%에 달하여, 여성의 취업과 아동양육이 병행되기 힘들다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더욱이 아동양육 부담이 큰 35세미만 여성(총 2,850명)의 경우 전체의 60%(1,710명)이 전통적인 남성부양형 부부에 속해 있었지만, 35세 이상 연령계층의 경우 맞벌이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비율이 M자형을 나타내고 있어 출산과 양육이 직장을 떠나게 한다는 지적들(김미경·주재선, 2003; 박수미, 2002)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교육수준의 경우 저학력집단에서 맞벌이 부부가 많이 관찰되고 있고,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1,287명)의 43%만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맞벌이 남성의 경우 단순노무/기능직이, 맞벌이 여성의 경우 서비스/판매직이 가장 많았고, 비맞벌이(남성부양형) 부부의 남성들은 상대적으로 사무·관리직의 비중이 큼을 알 수 있다. 소득 자료가 없어 정확히 단언할 수는 없으나, 교육과 학력의 분포만을 놓고 볼 때, 맞벌이 부부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⁵⁾ 여기서 마지막으로 언급되어야 할 것이 조사요일에 관한 것이다. 각 개인들의 시간사용패턴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어느 요일에 조사하였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평일은 5/7, 토요일과 일요일은 각 1/7의 가중치를 부여한 생활시간조사 보고서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2) 분석방법

협조적 적응, 이중노동부담 및 적응지체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총 노동시간 및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다변량분산분석(MANOVA)과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표 2>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이 세 가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핵심적인 독립 변수는 맞벌이여부, 성별, 연령이다. 우선, 협조적 적응모델에서는 맞벌이 여부, 즉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남성의 무급가사노동부담의 변이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변수가 된다. 맞벌이 남성의 경우 아내의 증가된 유급노동시간을 감안, 적극적으로 가사를 분담할 것이므로, 맞벌이 가구 내에서 부부간의 총 노동시간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 가설은, 연령과는 무관하게 맞벌이 남성이 비맞벌이 남성에 비하여 무급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며, 동시에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총 노동시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시행할 때, 성별의 설명력이 크지 않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을 때 지지될 수 있다.

그러나, 이중노동부담가설과 적응지체가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성별 총 노동시간의 차이가 유의미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중노동부담가설의 경우, 맞벌이 여성은 유급노동에 더하여 가사노동을 전담

5) 이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의 가장 대표적인 척도인 소득계층별 분포를 보면 더욱 명확해질 것이지만, 소득항목이 조사항목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원자료에는 소득자료가 포함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됨으로써 결국 가사노동시간 뿐만 아니라 총 노동시간까지 배우자의 그것보다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남성부양자 모형에 기초한 비맞벌이 부부의 경우, 전통적인 성분업 구조 속에서 여성의 총 노동시간이 남성보다 낮을 수 있다. 성별의 영향력은 맞벌이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총 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회귀분석모형을 맞벌이 여부에 따라 두 모델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리된 모형 속에서 성별은 중다회귀모형 내에서 다른 어떤 독립변수보다 큰 설명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맞벌이 여성의 이중노동 부담은 사회적으로 고착화된 규범이므로, 남성의 무급가사노동시간은 여성의 그것보다 크게 낮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향은 맞벌이 여부 및 남성의 연령변수와 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가정될 수 있다.

〈표 2〉 연구가설 요약 및 본 연구의 가설검증방법

연구 가설	초점 대상	주요 내용	가설검증방법 (채택조건)
협조적 적응	맞벌이 남성	여성이 경제참여할 때 남성이 적극적으로 가사노동을 분담	① 맞벌이 가구 내 성별 총 노동시간의 차이가 없고, ② 맞벌이 남성이 비맞벌이 남성에 비해 가사노동시간이 길며, ③ 이러한 경향이 연령과는 무관할 때 채택
이중 노동 부담	맞벌이 여성	맞벌이 남성의 행위는 바뀌지 않으며, 따라서 맞벌이 여성은 유급, 무급노동의 이중부담	① 맞벌이 여성의 총 노동시간이 맞벌이 남성보다 길고, ② 중다회귀모형 내 성별의 설명력이 매우 크며, ③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맞벌이 여부 및 연령과 무관할 때 채택
적응 지체	맞벌이 남성	맞벌이 여성의 이중부담 인정하나, 맞벌이 남성의 가사노동시간 역시 증가. 이러한 변화는 점진적, 따라서 세대간의 행위 차이로 파악됨	① 맞벌이 여성의 이중노동부담이 존재하고, ② 중다회귀모형 내 성별의 설명력도 크지만, ③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맞벌이, 젊은 연령층에서 유의하게 클 때 채택

이중노동부담가설에서는 단순한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보다는 맞벌이 여성의 총 노동시간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는 반면, 맞벌이 남성들의 행위 변화를 가정하고 있는 적응지체모형의 경우 총 노동시간보다는 맞벌이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적응지체가설은 사회문화적으로 고착화된 미시적 규범과 행위가 단기간에 바뀌지는 않았으나, 맞벌이 남성들의 가사노동투입 시간은 장기간에 걸쳐 의미 있게 증가해 왔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횡단자료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단적 분석에 기반하고 있는 '세대간' 효과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연령집단을 구분해 봄으로써 세대간의 행위차이를 간접적으로 유추해 볼 수는 있다. 즉, 이중노동부담에도 연령대별(세대별) 차이가 존재하며, 상대적으로 젊은 계층에서 남편들의 가사노동투입시간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적응지체가설 역시 그 정도의 차이일 뿐 맞벌이 여성이 더 많은 노동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독립변수로는 맞벌이 여부와 연령이 더욱 중요해진다.

3) 변수의 정의와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총 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이며 두 변수 모두 분단위로 계산되었다. 여기서 총 노동시간은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시간의 합으로 정의되며, 무급가사노동시간은 전통적인 가사노동과(의식주, 쇼핑, 가정경영)와 보살핌노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생활시간조사 상에 나타난 주 행동시간의 시간소비량으로 특정되었다.⁶⁾ 총노동시간과 무급가사노동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과 포함범위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2) 독립변수

① 성별: 여성은 0, 남성은 1의 값을 부여하였다.

② 맞벌이 여부: 맞벌이 여부는 연령과 함께 MANOVA 분석의 주요 독립변수이며,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모델에도 포함되었다. 맞벌이면 1, 전통형 부부이면 0으로 코딩하였다.

② 연령: 연령은 크게 세 집단으로 나누었다. 세대간 행위의 차이를 명확히 알아보기 위하여 가장 젊은 연령집단을 34세 이하로 제한하였고, 나머지 두 집단은 각각 35-44세, 45-60세 사이이다. 45-60세 사이 집단을 기준으로 더미변수화 하였다.

③ 가구내 욕구: 가구내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보살핌노동의 수요가 증가하여 전반적인 가사노동의 시간이 증가될 수 있다. 생활시간조사 자료에서는 이러한 가구내 욕구요인으로서 미취학아동의 유무와 노인의 동거여부를 포함시킬 수 있다. 미취학아동과 65세 이상 노인이 동거하면 각각 1의 값을, 없으면 0의 값을 부여하였다.

④ 기타 통제변수로 교육수준(중졸이하, 고졸, 초대졸이상), 자가거주여부, 조사요일, 지역(서울경기, 광역시지역, 도지역) 등이 포함되었고 전일제노동여부와 직종(전문/관리직, 사무/기술직, 서비스/판매직, 기능/단순노무/기타)은 남성에 대한 회귀분석에만 포함시켰다.

6) 생활시간조사에는 주행동과 동시행동에 대한 정보가 모두 수록되어 있다. 동시행동이란 식사를 하며 TV를 시청하는 것, 일을 하며 라디오를 듣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동시행동을 주 행동으로 간주하여 이를 합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주행동과 동시행동을 함께 분석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과 함께 모형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생활시간조사자료를 이용한 거의 모든 실증연구들은 동시행동을 분석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본 연구 역시 주행동시간만을 고려하였다.

〈표 3〉 생활시간조사상의 행동분류와 총노동시간 및 무급가사노동시간의 정의

생활시간조사상의 행동분류		노동의 성격	본 연구의 정의	
대분류	중분류			
2. 일	21. 고용된 일 및 자영업	유급노동	X	
	220. 무급가족종사			
	230. 무급농림어업			
	240. 자가소비농어업	무급 노동		
	250. 구직활동			
	260. 일관련물품구입			
	299. 기타 일관련행동			
4. 가정 관리	41. 음식준비 및 정리		무급 가사 노동	무급 가사 노동 시간 (4+5)
	42. 의류관리			
	43. 청소 및 정리			
	44. 집 관련 (집손질, 세차, 쓰레기 처리 등)			
	45. 가정경영 (가계부, 은행 및 관공서 일)			
	499. 기타 가사일			
5. 가족 보살 피기	51. 미취학아이돌보기	무급 가사 노동	무급 가사 노동 시간 (4+5)	총 노동시간 (2+4+5)
	52. 초중고생 돌보기			
	530. 배우자 보살피기			
	540. 부모 및 조부모 보살피기			
	550. 그 외 가족 보살피기			

4. 연구결과

1) 주요 행위별, 집단별 시간소비 분포

〈표 4〉는 분석대상을 성별, 맞벌이 여부에 따라 네 집단으로 분류한 후, 각 집단의 주요 행위별 1일 평균 시간소비량을 제시해 주고 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하루 1,440분의 시간을 소비하지만, 그 시간사용 패턴은 성별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면시간의 경우 네 집단간의 차이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다만, 맞벌이 여성은 다른 집단에 비해 수면시간이 하루 평균 약 20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시간은 맞벌이-비맞벌이 남성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학습과 참여·봉사 항목에 대한 평균시간소비량은 2~3분을 넘지 않아 의미 있는 해석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무급가사노동 시간의 경우,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성별격차가 크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맞벌이 여성과 전업주부간의 차이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주로 의식주와 관련된 전통적 가사노동의 영역(가정관리)에서 남성의 참여는 하루 평균 12분~17.5분 정도에 불과한 반면, 여성은 하루 평균 약 3시간~5시간을 가정관리영역에 할당함으로써 남성보다 약 10(맞벌이)~25(비맞벌이)배 정도의 시간을 더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 가사노동시간의 격차는, 그 정도는 완화되었으나, 보살핌 노동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되어, 맞벌이 부부는 약 5.5배 (남녀 각각 7.4, 41.6분), 비맞벌이(남성 부양형) 부부의 경우 약 11배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가정관리 영역에서 맞벌이 남편이 비맞벌이 남편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였지만, 보살핌 노동의 영역에서 정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이것은 앞의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취학 아동이 비맞벌이 부부에서 더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 또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비맞벌이 형태가 더 많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과 연관된다. 이는 미취학 아동이 결국 집중적인 보살핌 노동을 요하는 미취학 아동은 비교적 젊은, 비맞벌이 가구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취학아동 변수의 중요성은 뒤에 있을 MANOVA 및 중다회귀분석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표 4> 주요 행위별 시간소비 분포(단위: 분)

행위대분류	맞벌이 남편		비맞벌이 남편		맞벌이 아내		비맞벌이 아내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1. 수면	454.6	83.8	455.0	88.2	435.4	75.2	454.5	86.7
- 기타 개인유지	143.7	49.0	149.3	45.8	143.1	47.9	148.6	62.3
2. 일 (working)	454.8	196.3	462.4	192.8	365.5	205.1	7.8	43.1
3. 학습	0.8	15.2	1.3	20.2	0.8	13.8	0.2	6.8
4. 가정관리	17.5	42.7	12.0	35.5	187.2	108.7	294.5	116.1
5. 가족보살피기	7.4	28.5	11.6	32.6	41.6	69.8	121.6	130.1
6. 참여 및 봉사	2.5	24.8	1.1	15.1	2.1	19.9	4.6	32.0
7. 교재 및 여가	235.8	148.1	229.4	143.0	176.1	121.7	325.4	140.2
8. 이동	106.1	80.4	113.0	82.4	77.7	59.4	70.4	66.4
9. 기타	6.9	12.9	5.0	10.5	10.5	16.8	12.5	21.6

자료: 통계청, 1999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한편, 맞벌이 여성은 전업주부에 비하여 가정관리와 보살핌노동에 대한 시간소비가 현저히 적었지만, 유급노동과 병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이중노동부담에 시달리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추론해 볼 수 있다. 총 노동시간과 무급가사노동시간을 여러 유형별로 정리하고 있는 <표 5>에 의하면, 맞벌이 여성의 평균 무급가사노동 시간(약 229분, 또는 3시간 49분)은 전업주부(416분, 6시간 56분)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유급노동을 포함한 총 노동시간은 거의 10시간(594분)에 달하여,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전업주부보다 하루 평균 170분(약 2시간 50분) 정도를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맞벌이 여성의 총 노동시간은 남성의 총 노동시간보다도 약 100분 이상 더 많은 수치이다. 이러한 맞벌이 여성의 이중부담은 여가시간의 감소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즉, <표 4>에 나타난 교재

및 여가시간은 남성의 경우 맞벌이 여부와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지나, 맞벌이 여성은 전업주부의 절반 정도만의 여가시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남성에 비해서도 하루 평균 1시간 정도의 여가시간을 덜 갖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나아가, <표 5>에서는 전통적 가정관리영역과 보살핌노동을 합한 무급가사노동 시간은, 남성의 경우 맞벌이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맞벌이 남성이 24.8분, 전업주부를 둔 남성이 23.6분), 맞벌이 여성의 총 노동시간이 맞벌이 남성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경향과 함께 협조적 적응가설이 기각될 수 있는 근거를 주고 있다. 한편, 남성 연령의 경우 34세 이하 계층의 무급가사노동시간이 나머지 두 집단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맞벌이 여부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적응지체가설이 지지될 수 있는 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좀더 세밀한 통계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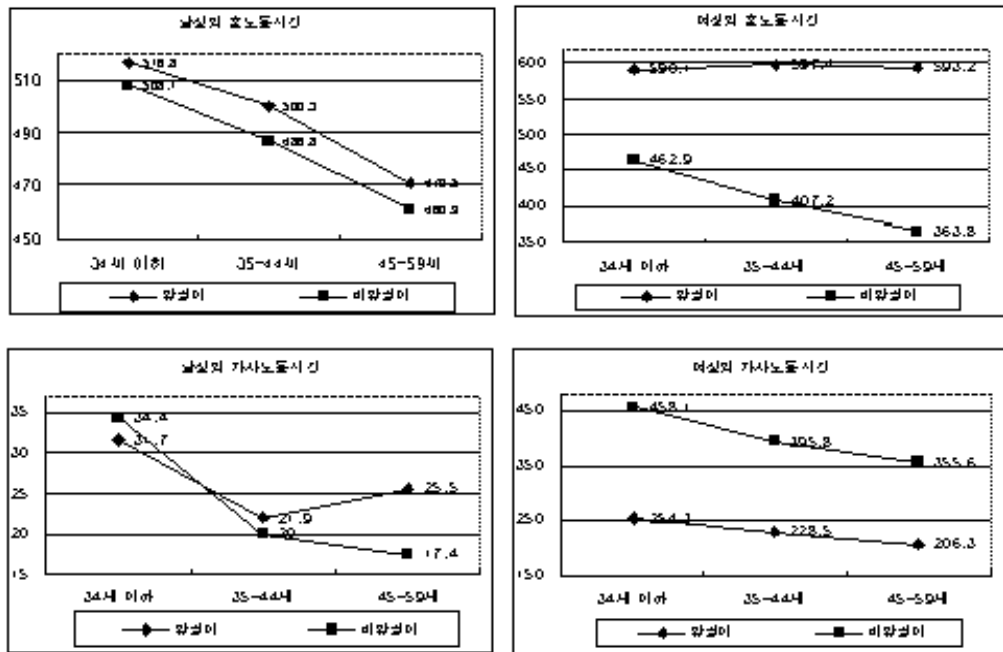
<표 5> 성별, 맞벌이 여부, 연령집단 별 총노동시간 및 가사노동시간

범 주		총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맞벌이여부	㉠ 비맞벌이	486.0	423.9	23.6	416.0
	㉡ 맞벌이	489.6	594.3	24.8	228.8
연령	① 34세 이하	511.2	515.0	33.5	374.7
	② 35-44세	494.2	520.0	21.0	296.6
	③ 45-59세	467.1	512.9	22.6	258.6

자료: 통계청, 1999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2) 총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다변량분산분석

연령과 맞벌이 변수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분석으로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고 각각에 대하여 총노동시간과 무급가사노동시간에 대한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먼저 <그림 1>은 맞벌이 여부와 연령에 따라 분리된 6개 하위 집단간의 노동시간들을 요약·정리해 주고 있다. 남성의 총 노동시간을 살펴보면, 맞벌이 연령집단들과 전통형 연령집단들 간에 거의 평행선이 그려진 가운데,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총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이 발견되고 있다. 실제로, <표 6>의 모델1에서 요약된 바와 같이, 연령변수만이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을 뿐, 맞벌이 여부의 유의성이나 맞벌이-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그림 1>에서 나타난 남성의 무급가사노동시간은 맞벌이 연령집단들의 가사노동시간을 연결한 선과 비맞벌이 연령집단들의 선이 교차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요인과 맞벌이여부요인의 상호작용효과가 예측되는 경우이다. 즉, 맞벌이 요인의 효과는 34세 이하 집단과 나머지 두 집단에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연령과 맞벌이 요인, 그리고 연령-맞벌이의 상호작용 효과 모두가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고, 맞벌이면서 젊은 연령계층에서 무급가사노동에 대한 투입시간이 비맞벌이/고연령 집단에 비하여 클 경우 적응지체가설이 지지될 수 있다.



〈그림 1〉 맞벌이 여부, 연령 집단별 총 노동시간 및 무급가사노동시간의 평균 분포

그러나, 〈표 7〉의 모델에서 요약해 주듯, 맞벌이 요인과 맞벌이-연령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도 .05수준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연령요인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될 뿐이다. 무엇보다, 〈그림 1〉에서는 통계적 유의성과는 별개로 적용지체가설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즉, 34세 이하 연령집단에서는 맞벌이 남성보다 전업주부를 둔 남성이 더 많은 시간을 무급가사노동에 투입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두 연령집단에서는 그 반대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된 연령요인만을 고려할 경우, 34세 이하의 젊은 남성들이 나머지 두 연령계층보다 무급가사노동을 더 많이 분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34세 이하의 연령층과 미취학아동간의 강한 상관관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것이 타당하다.⁷⁾

7)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34세이하' 연령층과 미취학아동여부 간의 상관관계(.531)가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의 수치는 다중공선성운 의심할 정도는 아니지만, 미취학아동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령요인의 효과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함을 알려준다. 따라서, 연령변수의 영향력과 통계적 유의성은 미취학아동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또, 미취학아동과 맞벌이여부 간에도 비교적 강한 부적 상관관계(-.225)가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미취학아동의 양육부담으로 여성의 취업이 제한되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맞벌이 여부의 효과 역시 미취학아동 변수를 통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6〉 총노동시간에 대한 MANOVA 분석결과

모델1 (남성)			모델2 (여성)		
1. 각 범주별 평균			1. 각 범주별 평균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① 34세 이하	516.8	508.1	① 34세 이하	590.1	462.9
② 35-44세	500.3	486.8	② 35-44세	597.4	407.2
③ 45-59세	470.5	460.9	③ 45-59세	593.2	363.8
2. MANOVA			2. MANOVA		
변수	D.F.	F값	변수	D.F.	F값
맞벌이	1	2.97	맞벌이	1	1252.75***
연령	2	18.27***	연령	2	26.12***
맞벌이*연령	2	.07	맞벌이*연령	2	31.43***
모델	5	7.92***	모델	5	265.84***
3. 사후검정 (Turkey HSD, 범주, F값)			3. 단순효과분석 (범주, F값)		
평균차	①-②	17.6*	맞벌이여부 within 연령①		204.34***
	①-③	49.4***	맞벌이여부 within 연령②		621.32***
	②-③	31.9***	맞벌이여부 within 연령③		450.87***

자료: 통계청, 1999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주: * $p < .05$, ** $p < .01$, *** $p < .001$

여성의 총 노동시간을 <그림 1>에서 살펴보면 맞벌이 여성의 경우 모든 연령집단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전업주부들은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총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경향이 발견되고 있다. 이것은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맞벌이 여부에 따른 총 노동시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표 6>의 모델 2는 연령과 맞벌이 변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나아가 연령-맞벌이여부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MANOVA 분석에서 두 변수간의 상호작용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산출되면, 단순효과분석(simple effect analysis)을 추가해야 의미 있는 해석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는 연령요인의 단순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이는 맞벌이 요인의 효과는 연령요인의 수준에 따라 다름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34세 이하 연령집단 안에서 맞벌이 여부에 따른 총 노동시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이것은 35-44세, 45-60세 집단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맞벌이 여성이 전업주부들에 비하여 더 많은 총 노동시간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맞벌이 여부의 차이가 모든 연령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의 무급가사노동시간에 대한 MANOVA 분석(<표 7>의 모델 2)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7〉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MANOVA 분석결과

모델1 (남성)			모델2 (여성)		
1. 각 범주별 평균			1. 각 범주별 평균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① 34세 이하	31.7	34.4	① 34세 이하	254.3	458.1
② 35-44세	21.9	20.0	② 35-44세	228.5	395.8
③ 45-59세	25.5	17.4	③ 45-59세	206.3	355.6
2. MANOVA			2. MANOVA		
변수	D.F.	F값	변수	D.F.	F값
맞벌이	1	1.87	맞벌이	1	1345.17***
연령	2	16.66***	연령	2	79.38***
맞벌이*연령	2	2.90	맞벌이*연령	2	11.05***
모델	5	8.90***	모델	5	384.66***
3. 사후검정 (Turkey HSD, 범주, F값)			3. 단순효과분석 (범주, F값)		
평균차	①-②	11.4***	맞벌이여부 within 연령①		796.34***
	①-③	8.8***	맞벌이여부 within 연령②		598.31***
			맞벌이여부 within 연령③		350.97***

자료: 통계청, 1999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주: *p<.05, **p<.01, ***p<.001

3) 총노동시간, 무급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이중노동부담가설에 의하면, 여성이 유급노동에 종사하게 될 경우에도 기존의 무급가사노동 부담은 줄어들지 않으며, 결국 유급노동과 무급가사노동이라는 이중적인 노동의 부담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가설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다른 변수들이 통제되었을 때, 여성의 총 노동시간이 남성의 그것보다 길다는 가정을 성립시킨다. 결국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맞벌이와 비맞벌이(남성부양형) 부부를 분리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이 두 모델 간에 나타나는 독립변수의 영향력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의 〈표 8〉은 맞벌이 여부에 따라 표본을 분리한 후 총 노동시간과 무급가사노동시간에 대한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요약해주고 있는데, 네 가지 모델 모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p<.001).

우선, 총 노동시간에 대한 중다회귀 분석결과는 이중노동부담 가설이 한국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맞벌이 부부 모델에서, 다른 요인이 통제되었을 때, 여성은 남성에 비해 총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것은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미한 (p<.001) 수준이었다. 반면 비맞벌이(남성부양형) 모델의 경우에는 정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것 역시 매우 높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고 있었다(p<.001). 결국 여성의 이중노동부담 가설은 (맞벌이) 근로여성에게 국한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성별 외에 맞벌이 모델의 총 노동시간을 설명하는 독립변수로는 연령과 취학 전이동을, 통제변수 중에서도 교육, 지역, 조사요일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학전 아동이 있는 경우, 44세 이하의 연령층일 때 총 노동시간이 증가하였고, 일요일보다는 평일과 토요일에, 기타 지역보다는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의 총 노동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맞벌이 모델의 경우 성별 외에 34세 이하 연령층, 조사요일 변수, 그리고 미취학 아동 여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독립변수들로 분석되었다.

〈표 8〉 총노동 및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결과

종속변수 모델	총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b	β	b	β	b	β	b	β
성별(남성)	-98.42	-.273 ***	65.76	.193 ***	-203.34	-.706 ***	-390.01	-.855 ***
34세이하	19.91	.044 *	23.31	.066 *	-1.63	-.005	8.67	.018
35-44세 (45-59세)	21.97	.060 **	9.97	.029	-1.60	-.006	-5.53	-.012
취학전아동 노인동거	19.30	.046 **	72.10	.211 ***	43.36	.131 ***	70.57	.154 ***
고졸	-8.43	-.016	11.79	.016	-4.41	-.011	14.98	.015
초대졸 (중졸이하)	-20.02	-.055 **	5.14	.015	11.74	.040 **	6.84	.015
초대졸	-36.51	-.078 ***	-4.67	-.012	-5.49	-.015	4.06	.008
서울, 경기	33.63	.062 ***	12.64	.027	-24.43	-.056 ***	4.83	.008
광역시 (기타지역)	21.10	.057 ***	2.86	.008	-9.12	-.030 *	-2.93	-.006
평일	161.06	.281 ***	152.50	.290 ***	-28.03	-.061 ***	13.36	.019
토요일 (일요일)	143.05	.180 ***	111.29	.153 ***	-27.06	-.043 **	11.23	.012
자가거주	-5.69	-.015	7.45	.022	4.95	.016	10.14	.022 *
상수	428,807***		225,483***		244,295***		358,430***	
Adjusted r^2	.139		.135		.521		.763	
F (Sig.F)	54.101 (p=.000)		43.190 (p=.000)		357.485 (p=.000)		874.031 (p=.000)	

자료: 통계청, 1999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주: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무급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맞벌이 모델과 비맞벌이 모델 모두 상당히 높은 모형적합도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Adjusted $r^2 =$ 각각 .521, .763),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변수의 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으며, 성별과 미취학 아동 유무를 제외하면 독립변수의 설명방향 역시 상반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총 노동시간과 마찬가지로 성별과 미취학아동 유무는 매우 강력한 설명변수였고, 특히 취학전아동 유무를 통제했을 때 연령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앞서 지적한 것처럼(각주 7 참조), 취학전아동변수의 영향력이 연령변수의 설명력으로 착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결국, 〈표 8〉에 제시된 네 가지 모델의 중다회귀분석은 이중노동부담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들을 얻고 있다.

〈표 9〉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모델	(1)		(2)	
	b	β	b	β
맞벌이	3.145	.030	2.781	.026
34세이하	3.304	.026	4.314	.034
35-44세 (45-59세)	-5.601	-.053 *	-4.955	-.047 *
고졸	-1.572	-.015	-.728	-.007
초대졸 (중졸이하)	-3.006	-.026	-1.439	-.012
서울,경기	-6.750	-.044 *	-6.186	-.041 *
광역시 (기타지역)	-6.375	-.059 **	-5.952	-.055 **
평일	-25.140	-.153 ***	-24.986	-.152 ***
토요일 (일요일)	-20.294	-.089 ***	-19.918	-.087 ***
자가거주	-.466	-.004	-.294	-.003
노인동거	.669	.004	.569	.003
취학전아동	14.492	.131 ***	14.656	.132 ***
폴타임유급노동			-14.197	-.083 ***
전문가, 관리직			1.155	.007
기술직, 사무직			-3.326	-.025
서비스, 판매직 (노무, 기능, 기타)			.053	.000
상수	48.151***		59.722***	
Adjusted r ² (변화량)	.036		.043 (.007)	
F (Sig.F)	12.319 (p=.000)		11.008 (p=.000)	

자료: 통계청, 1999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

주: *p<.05, **p<.01, ***p<.001

그렇다면, 앞의 MANOVA 분석에 이어 적응지체모델을 중다회귀 분석을 통해 다시 한번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자. 〈표 9〉는 남성만을 뽑아서 중다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를 요약해 주고 있는데, 이는 이중노동부담가설의 주요 분석대상이 맞벌이 여성이라면 적응지체모델의 주요 분석 대상은 맞벌이 남성이기 때문이다. 먼저 모델 (1)은 앞의 〈표 8〉에 제시된 독립변수만을 포함한 것이고, 모델 (2)는 이에 더하여 전일제노동여부, 직종더미 등의 개인의 노동시장관련 요인을 추가한 것이다. 이 모델들에서 적응지체가설이 지지되기 위해서는 맞벌이와 연령변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야 한다. 그러나, 〈표 9〉의 모델들에서는 적응지체가설을 지지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즉, 맞벌이 여부가 남성의 무급가사노동시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며, 연령변수 역시 34세 이하의 젊은층이 무급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것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는 없었다. 오히려, 다른 변수들이 통제되었을 때, 35-44세 연령층이 45세 이

상 집단에 비해 무급가사노동의 투입시간이 짧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한편,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중다회귀분석에서도 미취학 아동의 여부는 전일제 노동 여부와 함께 기혼 남성의 가사노동분담을 설명하는 중요한 독립변수였다. 결국, 적응지체가설이 주장하는 연령이나 맞벌이 효과보다는, 가구내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 전일제 노동이 아닌 경우 가사노동의 분담정도가 상승하게 된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의 경제참여 증가에 따른 무급가사노동의 분담정도를 설명하고 있는 세 가지 가설을 한국 상황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는 것이었다. 이 세 가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종속 변수로 총노동시간과 무급가사노동시간이 설정되었으며, 핵심 독립변수는 성별, 연령, 맞벌이 여부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연구가설 검증결과는 <표 10>을 참조).

첫째, 비맞벌이(남성부양형) 부부의 경우 남성의 총 노동시간이 여성의 그것보다 길었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여성의 총 노동시간이 남성보다 하루 평균 100분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맞벌이의 경우 하루 평균 24.8분, 전업주부를 둔 경우 23.6 분으로서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 이러한 수치는 여성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의 5-10%에 불과한 것으로서 남성들의 가사노동의 분담수준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연령과 맞벌이 여부에 따른 MANOVA 분석결과, 남성의 총 노동시간과 무급가사노동시간 모두 연령만이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남성의 가사노동분담 정도가 맞벌이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것은 남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중다회귀 분석결과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또, 연령의 경우 34세 이하 집단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가사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다회귀 분석모형에서 미취학 유무를 통제했을 때에는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의 상황에서 협조적 적응 가설은 물론 적응지체 가설도 채택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맞벌이 부부와 비맞벌이 부부를 나누어 중다회귀분석을 한 결과, 이중노동부담 가설이 한국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맞벌이 부부 모델에서, 다른 요인이 통제되었을 때, 여성은 남성에게 비해 총 노동시간이 긴 반면, 비맞벌이(남성부양형) 모델의 경우에는 정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 근로여성의 이중부담 현상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또, 총 노동시간과 무급가사노동 시간 모두에 있어서 미취학아동 유무는 매우 강력한 설명변수였으며, 미취학 아동이 있을 경우 총 노동시간과 무급가사노동시간이 증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양육과 기혼 여성의 취업이 서로 상충하고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결과라 볼 수 있다.

〈표 10〉 연구가설의 검증 결과

연구 가설	가설검증방법 (채택조건)	분석결과	채택 여부
협조적 적응	① 맞벌이 가구 내 성별 총 노동시간의 차이가 없고, ② 맞벌이 남성이 비맞벌이 남성에 비해 가사노동시간이 길며, ③ 이러한 경향이 연령과는 무관할 때 채택	①②③ 모두 나타나지 않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기각
이중 노동 부담	① 맞벌이 여성의 총 노동시간이 맞벌이 남성보다 길고, ② 중다회귀모형 내 성별의 설명력이 매우 크며, ③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맞벌이 여부 및 연령과 무관할 때 채택	①②③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함	채택
적응 지체	① 맞벌이 여성의 이중노동부담이 존재하고, ② 중다회귀모형내 성별의 설명력도 크지만, ③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맞벌이, 젊은 연령층에서 유의하게 클 때 채택	①과 ②는 이중노동부담가설과 공유하는 조건들이나, ③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기각

이상의 분석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 남성들의 무급가사노동 분담 정도는 매우 낮았고, 이것은 아내의 취업여부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궁극적으로 기혼 여성의 취업은 이중노동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러한 기혼 남성들의 기본적인 패턴이 젊은 연령층이라 해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점은 본 연구에서 발견한 의미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남성들의 적응·정체현상이야말로 젊은 기혼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의 한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단기간에 기혼 남성들의 급속한 행동 변화를 기대할 수 없으며, 가구내 노동의 성분업을 재구조화하려는 직접적인 이중노동부담의 완화방안을 현재로서는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근로 여성의 무급가사노동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정책의 과제로 남겨질 수밖에 없다. 비록 의식주와 관련된 전형적인 가사노동까지 대상으로 할 수는 없겠으나, 아동 양육을 포함한 보살핌 노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중노동부담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보상이나 지원책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근로여성에게는 직접적 서비스의 공급확대가 우선 필요할 것이며, 보살핌 노동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여성에게는 그들의 기회비용을 일정부분 보상할 수 있는 방안(공적연금에 대한 크레딧, 간병수당, 양육수당)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적 함의는 보살핌 노동에 대한 깊이 있는 추가적 분석과 논의를 토대로 할 때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이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이론적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보살핌 노동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하지는 못했으며, 이는 추후의 후속연구과제로 남겨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또, 근로기혼여성들 사이에서도 직종, 전일제노동여부, 자녀의 연령, 노인의 연령이나 기능, 병약자에 대한 간병부담 등에 따라 매우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는 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기혼여성을 동질적인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가정하였다는 연구의 한계를 가진다. 하지만, 생활시간조사 자료로는 미취학아동의 유무, 고령자의 유무만 알 수 있을 뿐, 10세미만의 학령기 자녀의 수와 연령,

미취학 아동의 연령, 고령자의 건강상태 및 수발부담을 알 수 없다. 이는 자료의 근본적 한계로서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으며, 좀더 근본적으로는 본 연구의 목적상 주 분석이 근로기혼여성'에게만 집중될 수는 없었다는 점 역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이다. 결국, 근로기혼여성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보살핌노동의 부담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에 바탕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금까지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개인의 '시간사용' 측면에 주목하였다. 이 연구가 사용한 시간조사 자료는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용될 수 있다. 우선, 지금까지 지엽적인 차원에서만 진행될 수 있었던 가족의 복지공급을 다양한 측면에서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자료는 사회복지학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 생활시간 조사는 측정이 어려운 가족의 서비스 공급량을 추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할 때, '복지생산이 국가-시장-가족 사이에 배분되는 양식'으로 정의되는 복지체제와 복지혼합구조에 대한 체계적 실증연구를 가능하게 한다(Esping-Andersen, 1999). 또, 보살핌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한다든지, 보살핌 노동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들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데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무급가사노동 중 보살핌 노동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의 복지서비스 제공기능에 초점을 맞출 수 있으며, 나아가 가족의 복지공급에 대한 화폐가치의 추정도 가능할 수 있다. 나아가, 생활시간조사는 매 5년마다 실시될 예정이므로, 장기적인 시계열 연구도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횡단자료의 연령변수를 사용하여 적응지체 가설의 검증은 시도했지만, 원래 이 가설은 20-30년 정도의 장기적인 관찰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사회복지정책학 분야에서 '가족'과 '시간'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 실증연구가 계속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미경·송다영. 2002. 『여성의 노인부양부담 완화를 위한 성인지적 정책개발』. 한국여성개발원.
- 김미경·주재선. 2003. “고령화시대 노인부양부담과 여성의 경제활동”. 『여성연구』 65(2).
- 문숙재·윤소영·김은희. 2002. “무보수 가사노동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40(10): 161-176.
- 박수미. 2002. “한국여성들의 첫 취업 진입 퇴장에 미치는 생애사건의 역동적 영향”. 『한국사회학』 36(2): 145-174.
- 손문금. 2003. “맞벌이 주부의 이중부담과 여가의 성격”. 『통계연구』 8(2): 23-58.
- 송혜림. 2000. “맞벌이 가정에서 남편의 가사노동참여실태”. 『생활과학논문집』 2(1): 103-115. 울산대학교.
- 신성은. 1996. “계층별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양세정·김태은. 2002. “맞벌이 가계와 비맞벌이 가계의 가사노동 시장대체지출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5): 87-98.
- 이기영 외. 2001. 『한국과 일본의 생활시간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명신. 2001. “전문직 맞벌이 부부의 권력구조와 가사분담”. 『사회과학연구』 19: 43-164.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이미숙. 1994. “맞벌이 부부의 가사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생활과학연구논집』 14(1): 1-34.
- 장지연·부가청. 2003. “숨겨진 선택: 기혼여성노동자의 일과 자녀양육”. 『여성연구』 65(2).
- 조미환·임정빈. 1997.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 『대한가정관리학회지』 5(4): 369-384.
- 조성은. 1998.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조희금. 2000. “맞벌이 부부의 시간사용과 직업만족도”. 『사회과학연구』 7(3): 373-390. 대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최해숙·이은혜. 1998. “맞벌이 가족에서 아버지의 가사와 양육참여”. 『Yonsei Journal of Human Ecology』 22: 84-93.
- 홍승아. 1998. “가사노동의 성격에 대한 연구-노동력재생산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11-21.
- Esping-Andersen, G. 1999.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es*. Oxford University Press.
- Gershuny, J., M. Godwin and S. Jones. 1994. “The Domestic Labour Revolution: a Process of Lagged Adaptation” in M. Anderson et al., *The Social and Political Economy of the Household*. Oxford University Press. pp. 161-197.
- Hochschild, A. 1990. *The Second Shift*. Piatkus.
- Horrell, S. 1994. “Household Time Allocation and Women’s Labour Force Participation” in M. Anderson et al., *The Social and Political Economy of the Household*. Oxford University Press. pp. 198-224.
- Gershuny, J. 2000. *Changing Times - Work and Leisure in Postindustrial Society*. Oxford University Press.

An Empirical Study on the Dual Burden of
Married Working Women :
Testifying the Adaptive Partnership, Dual Burden and
Lagged Adaptation Hypotheses

Kim, Jin-Wook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mpirically testify three hypotheses on the relation between married women's employment and the allocation of unpaid domestic work within households - i.e., adaptive partnership (AP), dual burden (DB) and lagged adaptation (LA) models. The AP hypothesis assumes that, when wives are employed, husbands spend more time doing housework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eir wives' increased responsibility. The DB model, by contrast, indicates that, even if married women are employed, their burden on domestic work does not decrease. In this case, therefore, the dual burden of married women can be expected. Between these two opposite views, the third, alternative hypothesis has been suggested recently. The LA model argues that the behaviours of households are adaptive to the changing environments but over a period of many years and even across generations. The article has analysed the total work time as well as unpaid domestic work time to testify these three hypotheses, utilising 1999 Time Use Survey data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sed as follows. First, married working women worked 100 minutes more than their male spouses. Second, the average domestic work time of married men, 23-25 minutes per day, was no more than 5-10% of that of women. Third, the effects of age and women's employment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multiple regression models, which means that the DB hypothesis explains the situation of married working women in Korea. Based on these findings, the article suggested the expansion of the public social service system to mitigate the dual burden of married working women, the introduction of compensatory credit for caring work, and the directions of further empirical research using the time use survey data.

Key words: unpaid domestic labour, dual burden, time use survey, gender division of labour.

[접수일 2005. 3. 2. 게재확정일 2005. 4. 15.]